제6장 그 밖의 것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1. '이'로만 나는 것

가붓이	깨끗이	나붓이	느긋이	둥긋이
따뜻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많이	적이	헛되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2.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3.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이 조항은 부사의 끝음절 발음에 따라서 '-이'나 '-히'로 표기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사 중에는 끝음절이 [이]로 소리 나기도 하고 [히]로 소리 나기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부사는 끝음절을 '히'로 적기로 하였다.

부사의 끝음절이 [이]로 나는지 [히]로 나는지를 직관적으로 명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참조하여 구별할 수는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어마다 국어사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⑴ '이'로 적는 것

① 겹쳐 쓰인 명사 뒤

겹겹이	골골샅샅이	곳곳이	길길이
나날이	낱낱이	다달이	땀땀이
몫몫이	번번이	샅샅이	알알이
앞앞이	줄줄이	짬짬이	철철이

② 'ㅅ' 받침 뒤

기웃이	나긋나긋이	남짓이	뜨뜻이
버젓이	번듯이	빠듯이	지긋이

③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가벼이	괴로이	기꺼이	너그러이
부드러이	새로이	쉬이	외로이
즐거이			

④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

같이	굳이	길이	깊이
높이	많이	실없이	헛되이

⑤ 부사 뒤(한글 맞춤법 제25항 2 참조)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히죽이		

(2) '히'로 적는 것

① '-하다'가 붙는 어근 뒤(단, 'ㅅ' 받침 제외)

간편히	고요히	공평히	과감히
극히	급히	급급히	꼼꼼히
나른히	능히	답답히	딱히
속히	엄격히	정확히	족히

②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결합하여 된 부사에서 온 말

익히(← 익숙히)　　특히(← 특별히)

③ 어원적으로는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에 부사화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로 분석되더라도, 그 어근 형태소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단어의 경우는 익어진 발음 형태대로 '히'로 적는다.

작히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본음으로 나는 것)	(속음으로 나는 것)
승낙(承諾)	수락(受諾), 쾌락(快諾), 허락(許諾)
만난(萬難)	곤란(困難), 논란(論難)
안녕(安寧)	의령(宜寧), 회령(會寧)
분노(忿怒)	대로(大怒), 희로애락(喜怒哀樂)

토론(討論)	의논(議論)
오륙십(五六十)	오뉴월, 유월(六月)
목재(木材)	모과(木瓜)
십일(十日)	시방정토(十方淨土), 시왕(十王), 시월(十月)
팔일(八日)	초파일(初八日)

'속음'은 원래의 음(본음)이 변하여 널리 퍼진 음을 말한다. 이러한 소리는 현실적으로 널리 쓰이는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하나의 한자가 단어에 따라 본음과 속음으로 달리 소리 나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제공(提供), 제기(提起) / 보리(菩提), 보리수(菩提樹)
도장(道場)(무예를 닦는 곳) / 도량(道場)(도를 얻으려고 수행하는 곳)
공포(公布) / 보시(布施), 보싯돈(布施-)
자택(自宅) / 본댁(本宅), 시댁(媤宅), 댁내(宅內)
단심(丹心), 단풍(丹楓) / 모란(牧丹)
동굴(洞窟), 동네(洞-) / 통찰(洞察), 통촉(洞燭)
당분(糖分), 혈당(血糖) / 사탕(砂糖), 설탕(雪糖), 탕수육(糖水肉)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으)ㄹ거나	-(으)ㄹ꺼나
-(으)ㄹ걸	-(으)ㄹ껄

-(으)ㄹ게	-(으)ㄹ께
-(으)ㄹ세	-(으)ㄹ쎄
-(으)ㄹ세라	-(으)ㄹ쎄라
-(으)ㄹ수록	-(으)ㄹ쑤록
-(으)ㄹ시	-(으)ㄹ씨
-(으)ㄹ지	-(으)ㄹ찌
-(으)ㄹ지니라	-(으)ㄹ찌니라
-(으)ㄹ지라도	-(으)ㄹ찌라도
-(으)ㄹ지어다	-(으)ㄹ찌어다
-(으)ㄹ지언정	-(으)ㄹ찌언정
-(으)ㄹ진대	-(으)ㄹ찐대
-(으)ㄹ진저	-(으)ㄹ찐저
-올시다	-올씨다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으)ㄹ까?	-(으)ㄹ꼬?	-(스)ㅂ니까?
-(으)리까?	-(으)ㄹ쏘냐?	

'ㄹ'로 시작하는 어미는 된소리로 소리가 나더라도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

-ㄹ지	-ㄹ수록	-ㄹ사
-ㄹ세라	-ㄹ시고	-ㄹ진대

'ㄹ'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ㄹ까	오늘 어디 갈까?

-ㄹ깝쇼	점심상 보아 올릴깝쇼?
-ㄹ꼬	집도 없이 나는 어디로 갈꼬?
-ㄹ쏘냐	내가 너에게 질쏘냐?
-ㄹ쏜가	내 마음 아실 이 누구일쏜가?

이 밖에 '-ㄹ거나, -ㄹ걸, -ㄹ게' 등은 '-ㄹ꺼나, -ㄹ껄, -ㄹ께' 등으로 적지 않는다.

제54항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심부름꾼	심부름군	귀때기	귓대기
익살꾼	익살군	볼때기	볼대기
일꾼	일군	판자때기	판잣대기
장꾼	장군	뒤꿈치	뒷굼치
장난꾼	장난군	팔꿈치	팔굼치
지게꾼	지겟군	이마빼기	이맛배기
때깔	땟갈	코빼기	콧배기
빛깔	빛갈	객쩍다	객적다
성깔	성갈	겸연쩍다	겸연적다

(1) '-꾼/-군'은 '꾼'으로 통일하여 적는다.

구경꾼	나무꾼	낚시꾼	난봉꾼
노름꾼	농사꾼	누리꾼	도굴꾼
도망꾼	도박꾼	막노동꾼	말썽꾼
머슴꾼	밀렵꾼	밀수꾼	방해꾼

배달꾼	사기꾼	사냥꾼	살림꾼
소리꾼	술꾼	이야기꾼	잔소리꾼
장사꾼	재주꾼	짐꾼	춤꾼
투기꾼	파수꾼	훼방꾼	힘꾼

(2) '-깔/-갈'은 '깔'로 통일하여 적는다.

맛깔 태깔(態-)

(3) '-때기/-대기'는 '때기'로 적는다.

거적때기	나무때기	널판때기	등때기
배때기	송판때기	판때기	팔때기

(4) '-꿈치/-굼치'는 '꿈치'로 적는다.

발꿈치 발뒤꿈치

(5) '-배기/-빼기'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첫째, [배기]로 발음되는 경우는 '배기'로 적고

귀퉁배기	나이배기	대짜배기	육자배기(六字--)
주정배기(酒酊--)	진짜배기	포배기	

둘째, 한 형태소 안에서 'ㄱ, ㅂ' 받침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경우는 '배기'로 적으며(한글 맞춤법 제5항 다만 참조)

뚝배기 학배기

셋째, 다른 형태소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것은 '빼기'로 적는다.

고들빼기	곱빼기	과녁빼기	그루빼기
대갈빼기	머리빼기	밥빼기	악착빼기

앍둑빼기　　앍작빼기　　억척빼기　　얽둑빼기
얽빼기　　얽적빼기　　재빼기

단, '언덕배기'는 한 형태소 내부가 아니지만 '언덕바지'와의 형태적 연관성을 보이기 위해 '언덕배기'로 적는다.

(6) '-적다/-쩍다'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첫째, [적따]로 발음되는 경우는 '적다'로 적고

괘다리적다　　괘달머리적다　　딴기적다　　열퉁적다

둘째, '적다[少]'의 뜻이 유지되고 있는 합성어의 경우는 '적다'로 적으며

맛적다(재미나 흥미가 거의 없어 싱겁다)

셋째, '적다[少]'의 뜻이 없이 [쩍따]로 발음되는 경우는 '쩍다'로 적는다.

맥쩍다　　멋쩍다　　해망쩍다　　행망쩍다

제55항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은 한 가지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맞추다(입을 맞춘다. 양복을 맞춘다.)	마추다
뻗치다(다리를 뻗친다. 멀리 뻗친다.)	뻐치다

'제자리에 맞게 붙이다, 주문하다, 똑바르게 하다, 비교하다' 등의 뜻이 있는 말은 '마추다'가 아닌 '맞추다'로 적는다.

퍼즐을 맞추다	구두를 맞추다	줄을 맞추다
기분을 맞추다	시간을 맞추다	(친구와) 답을 맞추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가다, 어떤 것에 미치게 길게 내밀다'의 뜻이 있는 말은 '뻐치다'가 아닌 '뻗치다'로 적는다.

태백산맥은 남북으로 길게 뻗쳐 있다.
아이는 팔을 뻗쳐 엄마를 잡으려 했다.

제56항

'-더라,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지난겨울은 몹시 춥더라.	지난겨울은 몹시 춥드라.
깊던 물이 얕아졌다.	깊든 물이 얕아졌다.
그렇게 좋던가?	그렇게 좋든가?
그 사람 말 잘하던데!	그 사람 말 잘하든데!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얼마나 놀랐든지 몰라.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배던지 사과던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

1. '-더-'와 '-던'은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로 옮겨 그대로 전달할 때 쓰인다. 이때의 '-더-'와 '-던'을 '-드-, -든'으로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오랜만에 만났더니 반갑더라.
선생님도 이젠 늙으셨더구나.
그림을 잘 그렸던데 여기에 걸자.
선생님은 교실에 계시던걸.

2. 선택의 의미를 지닌 '-든지', '-든'을 과거 경험과 관계된 '-던지', '-던'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과를 먹든지 감을 먹든지 하렴.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제57항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가름	둘로 가름.
갈음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혼동이 되는 말을 구별해서 쓰도록 한 조항이다. 실제 생활에서 잘못 쓰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름'은 '가르다'의 '가르-'에 '-ㅁ'이 붙은 말이고, '갈음'은 '갈다'의 '갈-'에 '-음'이 붙은 말로 의미가 다르므로 구별해서 써야 한다.

가름 예 잣나무와 소나무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가름이 되지 않는다.
갈음 예 가족 모임으로 돌잔치를 갈음한다.

거름	풀을 썩힌 거름.
걸음	빠른 걸음.

‘거름’은 ‘(땅이) 걸다’의 ‘걸-’에 ‘-음’이 붙은 형태이지만, 본뜻에서 멀어져 ‘비료’의 의미로 쓰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거름’으로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19항 다만 참조) ‘걸음’은 ‘걷다’의 ‘걷-’에 ‘-음’이 붙은 형태이다.

거름 예 농부들은 배추밭에 거름을 주었다.

걸음 예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걸음을 재촉했다.

거치다	영월을 거쳐 왔다.
걷히다	외상값이 잘 걷힌다.

‘거치다’는 ‘무엇에 걸리거나 막히다’,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의 뜻으로 쓰이는 동사이고, ‘걷히다’는 ‘걷다’의 피동사이다.

거치다 예 더 이상 마음에 거칠 것이 없다.

예 수원을 거쳐 대전으로 갔다.

걷히다 예 해가 뜨자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예 그물이 걷히자 팔뚝만 한 고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걷잡다	걷잡을 수 없는 상태.
겉잡다	겉잡아서 이틀 걸릴 일.

'걷잡다'는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마음을 진정하거나 억제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며, '겉잡다'는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걷잡다　　예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겉잡다　　예 오늘 경기장에는 겉잡아서 천 명이 넘게 온 듯하다.

그러므로(그러니까)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인다. 이에 비해 '그럼으로(써)'는 '그러다'의 명사형 '그럼'에 '으로(써)'가 결합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므로'에는 '써'가 결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럼으로(써)'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예 그는 봉사하는 삶을 산다. 그러므로 존경을 받는다.
그럼으로(써)　예 그는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선다. 그럼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낀다.

노름	노름판이 벌어졌다.
놀음(놀이)	즐거운 놀음.

'노름'은 어원적으로 '놀–'에 '–음'이 붙어서 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어간의 본뜻에서 멀어졌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19항 다만 참조) 이에 비해 '놀음'은 '놀다'의 '놀–'에 '–음'이 붙은 것으로, 어간의 본뜻이 유지되므로 그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19항 2 참조)

노름	예 그는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했다.
놀음	예 놀음놀이, 놀음판(=놀음놀이판).

느리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
늘이다	고무줄을 늘인다.
늘리다	수출량을 더 늘린다.

'느리다'는 '동작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늘이다'는 '본디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 '아래로 길게 처지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또한 '늘리다'는 '물체의 부피 따위를 본디보다 커지게 하다', '수나 분량 따위를 본디보다 많아지게 하다' 등의 뜻을 나타낸다.

느리다	예 나무늘보는 행동이 느리다.
늘이다	예 치마 길이를 늘여서 입었다.
늘리다	예 우리 가족은 평수를 늘려 새집으로 이사했다.
	예 실력을 늘려서 다음에 다시 도전해 보자.

다리다	옷을 다린다.
달이다	약을 달인다.

'다리다'는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기 위해 다리미로 문지르다'라는 뜻을, '달이다'는 '액체를 끓여서 진하게 하다', '약재에 물을 부어 우러나도록 끓이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다리다　　예 구겨진 바지를 매끈하게 다렸다.

달이다　　예 보약을 달이는지 한약 냄새가 가득했다.

다치다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닫히다	문이 저절로 닫혔다.
닫치다	문을 힘껏 닫쳤다.

'다치다'는 '신체에 상처가 생기다'라는 뜻을 나타내며, '닫히다'는 '닫다(문짝 따위를 제자리로 가게 하여 막다)'의 피동사이다. 또한 '닫치다'는 '문짝 따위를 세게 닫다', '입을 굳게 다물다'의 뜻을 나타낸다.

다치다　　예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

닫히다　　예 열어 놓은 문이 바람에 닫혔다.

닫치다　　예 동생은 화가 났는지 문을 탁 닫치고 나갔다.

마치다	벌써 일을 마쳤다.
맞히다	여러 문제를 더 맞혔다.

'마치다'는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라는 뜻을, '맞히다'는 '표적에 적중하다', '맞는 답을 내놓다', '침이나 매 따위를 맞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마치다　　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

맞히다　　예 화살을 과녁에 정확하게 맞혔다.

예 문제의 정답을 맞혔다.

예 꼬마들에게는 주사를 맞히기가 힘들다.

목거리	목거리가 덧났다.
목걸이	금목걸이, 은목걸이.

'목거리'는 '목이 붓고 아픈 병'을, '목걸이'는 '목에 거는 장신구'를 뜻하는 말이다.

목거리 예 약을 먹어도 목거리가 잘 낫지 않는다.
목걸이 예 새로 산 목걸이가 옷과 잘 어울린다.

바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받치다	우산을 받치고 간다.
	책받침을 받친다.
받히다	쇠뿔에 받혔다.
밭치다	술을 체에 밭친다.

'바치다'는 '신이나 웃어른께 드리다',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거나 쓰다'라는 뜻을, '받치다'는 '물건의 밑이나 옆 따위에 다른 물체를 대다',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다' 등의 뜻을 나타낸다. '받히다'는 '받다(머리나 뿔 따위로 세차게 부딪치다)'의 피동사이며, '밭치다'는 '밭다(건더기와 액체가 섞인 것을 체 따위에 따라서 액체만을 따로 받아 내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다.

바치다 예 하늘에 제물을 바친다.
예 그 과학자는 평생을 신약 개발에 몸을 바쳤다.
받치다 예 쟁반에 찻잔을 받쳐 가져왔다.
예 이 영화는 배경 음악이 장면을 잘 받쳐 주어서 더욱 감동적이다.
받히다 예 소에게 받히었다.

밭치다　　예 삶은 국수를 찬물에 헹군 후 체에 밭쳐 놓았다.

반드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반듯이	고개를 반듯이 들어라.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을, '반듯이'는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라는 뜻을 나타낸다.

반드시　　예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
반듯이　　예 우리는 반듯이 몸을 누이고 잠을 청했다.

부딪치다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부딪히다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부딪치다'는 '부딪다(무엇과 무엇이 힘 있게 닿거나 마주 대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고, '부딪히다'는 '부딪다'의 피동사이다.

부치다	힘이 부치는 일이다.	붙이다	우표를 붙인다.
	편지를 부친다.		책상을 벽에 붙였다.
	논밭을 부친다.		흥정을 붙인다.
	빈대떡을 부친다.		불을 붙인다.
	식목일에 부치는 글.		감시원을 붙인다.
	회의에 부치는 안건.		조건을 붙인다.
	인쇄에 부치는 원고.		취미를 붙인다.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친다.		별명을 붙인다.

‘붙이다’에는 ‘붙게 하다’의 의미가 있는 반면, ‘부치다’에는 그런 의미가 없다.

‘부치다’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① 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하다.
② 편지나 물건 따위를 상대에게 보내다.
③ 논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다.
④ 프라이팬 따위에 기름을 바르고 빈대떡 따위의 음식을 만들다.
⑤ 어떤 행사나 특별한 날에 즈음하여 어떤 의견을 나타내다.
⑥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
⑦ 원고를 인쇄에 넘기다.
⑧ 먹고 자는 일을 제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다.

‘붙이다’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① 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다.
② 물체와 물체 따위를 서로 바짝 가깝게 놓다.
③ 겨루는 일 따위가 서로 어울려 시작되게 하다.
④ 불을 옮겨 타게 하다.
⑤ 사람 등을 딸려 붙게 하다.
⑥ 조건, 이유, 구실 따위를 달다.
⑦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 생겨나게 하다.
⑧ 이름 따위를 만들어 주다.

시키다	일을 시킨다.
식히다	끓인 물을 식힌다.

‘시키다’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며, ‘식히다’는 ‘식다(더운 기가 없어지다, 어떤 일에 대한 열의나 생각 따위가 줄거나 가라앉다)’의 사동사이다.

시키다　　예 인부들에게 일을 시켰다.

식히다　　예 국이 뜨거우니 식혀 드세요.

아름	세 아름 되는 둘레.
알음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
앎	앎이 힘이다.

'아름'은 '두 팔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 또는 그러한 둘레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를 뜻하며, '알음'은 '사람끼리 서로 아는 일', '지식이나 지혜가 있음'과 같은 뜻을 나타낸다. 한편 '앎'은 '아는 일'이라는 뜻의 말이다.

아름　　예 둘레가 두 아름이나 되는 나무

알음　　예 우리는 서로 알음이 있는 사이다.

앎　　예 앎은 삶의 힘이다.

안치다	밥을 안친다.
앉히다	윗자리에 앉힌다.

'안치다'는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그 재료를 솥이나 냄비 따위에 넣고 불 위에 올리다'라는 뜻을 나타내며, '앉히다'는 '앉다'의 사동사로 쓰이거나, '문서에 줄거리를 따로 적어 놓다', '버릇을 가르치다'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안치다　　예 시루에 떡을 안쳤다.

　　예 솥에 고구마를 안쳐서 찐다.

앉히다　　예 아이를 무릎에 앉혔다.

예 그는 책을 읽다가 중요한 것을 여백에 앉히는 습관이 있다.

예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버릇을 앉혀 주셨다.

어름	두 물건의 어름에서 일어난 현상.
얼음	얼음이 얼었다.

'어름'은 '두 사물의 끝이 맞닿은 자리'를 뜻하며, '얼음'은 '물이 얼어서 굳어진 물질'을 뜻한다. '얼음'은 '얼다'의 어간 '얼-'에 '-음'이 붙은 형태이므로, 어간의 본모양을 밝히어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19항 2 참조)

어름　　예 어부들은 바닷물과 민물이 맞물린 어름에 그물을 내렸다.

얼음　　예 강에 얼음이 얼었다.

이따가	이따가 오너라.
있다가	돈은 있다가도 없다.

'이따가'는 '조금 지난 뒤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고, '있다가'는 '있다'의 '있-'에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끝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옮겨지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다가'가 붙은 형태이다. '이따가'도 어원적인 형태는 '있-+-다가'로 분석되는 것이지만, 그 어간의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따가　　예 이따가 만나자.

있다가　　예 여기에 며칠 더 있다가 갈게.

저리다	다친 다리가 저린다.
절이다	김장 배추를 절인다.

‘저리다’는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쑤시듯이 아프다’, ‘몸의 일부가 오래 눌려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해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라는 뜻이고, ‘절이다’는 ‘푸성귀나 생선 따위에 소금기나 식초, 설탕 따위를 배어들게 하다’라는 뜻이다.

저리다	예 움직이지 않고 있었더니 발이 저리기 시작했다.
절이다	예 배추를 소금물에 절인다.

조리다	생선을 조린다. 통조림, 병조림.
졸이다	마음을 졸인다.

‘조리다’는 ‘양념을 한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국물에 넣고 바짝 끓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졸이다’는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해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조리다	예 고등어와 무를 넣고 맛있게 조렸다.
졸이다	예 너무 가슴 졸이지 말고 결과를 기다려 보자.

주리다	여러 날을 주렸다.
줄이다	비용을 줄인다.

'주리다'는 '제대로 먹지 못하여 배를 곯다'라는 의미이고, '줄이다'는 '줄다'의 사동사이다.

주리다　예 모두 여러 날 배를 주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줄이다　예 건강을 위해 체중을 조금 줄이려고 한다.

하노라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노라고'는 자기 나름대로 꽤 노력했음을 나타내고, '-느라고'는 앞의 내용이 뒤에 오는 내용의 목적이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

-노라고　예 모두 하노라고 했는데 만족스럽지는 않다.
　　예 제 딴에는 열심히 쓰노라고 쓴 게 이 모양이다.
-느라고　예 어제 소설을 읽느라고 밤을 새웠다.
　　예 먼 길 오시느라고 힘드셨겠습니다.

-느니보다(어미)	나를 찾아오느니보다 집에 있거라.
-는 이보다(의존 명사)	오는 이가 가는 이보다 많다.

'-느니보다'는 '-는 것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는 이보다'는 '-는 사람보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느니보다　예 억지로 하느니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는 이보다　예 동네에 아는 이보다 모르는 이가 더 많다.

-(으)리만큼(어미)	나를 미워하리만큼 그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
-(으)ㄹ 이만큼(의존 명사)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으)리만큼'은 '-(으)ㄹ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고, '-(으)ㄹ 이만큼'은 '-(으)ㄹ 사람만큼'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으)리만큼 예 친구 덕에 배가 터지리만큼 잘 먹었다.

-(으)ㄹ 이만큼 예 떠나는 이도 남겨질 이만큼 마음이 아프다.

-(으)러(목적)	공부하러 간다.
-(으)려(의도)	서울 가려 한다.

'-(으)러'는 가거나 오거나 하는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고, '-(으)려(고)'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으)러 예 무엇을 사러 가니?
책을 사러 서점에 간다.

-(으)려 예 내일 무엇을 하려(고) 하니?
친구를 만나려(고) 한다.

(으)로서(자격)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으)로써(수단)	닭으로써 꿩을 대신했다.

'(으)로서'는 '지위나 신분, 자격'을 나타내며, '(으)로써'는 '재료, 수단, 도구' 등을 나타낸다.

(으)로서 예 그런 말은 친구로서 할 말이 아니다.
예 나는 주민 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하였다.

(으)로써 예 쌀로써 떡을 빚는다.
예 말로써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

한편 '(으)로써'는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예 고향을 떠난 지 올해로써 20년이 된다.

-(으)므로(어미)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ㅁ, -음)으로(써)(조사)	그는 믿음으로(써) 산 보람을 느꼈다.

'-(으)므로'는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이며, '-(으)ㅁ으로(써)'는 '-(으)ㅁ'에 조사 '으로(써)'가 결합한 형태이다. 어미 '-(으)므로'에는 '써'가 결합하지 않는다.

-(으)므로 예 일교차가 크므로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예 비가 왔으므로 우산을 가지고 나갔다.

-(으)ㅁ으로(써) 예 그는 늘 웃음으로(써) 친구를 맞이한다.
예 평소에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지킨다.